하가다 소감문

고1 문예찬

5박 6일간의 길고도 짧은 시간의 하가다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출발할때는 가서 휴대폰을 걷는다는 말에 친구들이랑 연락을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에 걱정되기도하고 한편으로는 기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동안 지내오면서 하가다를 많이 하지 않았는데 가서 잘 할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낯을 많이 가리는 편이라 새로운 사람들과 친해지지 못할거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걱정과는다르게 HCS학생들이 먼저 다가와줘서 친구들과 빨리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첫째 날에 하가다를 할때는 걱정과 다를 것 없이 하가다를 하는게 지루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학교에 절대로 입학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녁집회때는 저스틴 김 목사님께서 성령사역을 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말 한번으로 사람들이 쓰러지는 것들을 보니 목사님께서 오시면 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께서 기도를 받고싶은사람들은 모두 무대위로 올라와서 기도를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희 교회 친구들이 계속 쓰러지는 모습을 보고 무서워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목사님 앞으로 당당히 나아가 기도를 받을 수 있게해달라고 그랬더니 두려움이 없어지고 오히려 기도를 받아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현이를 이끌고 무대위로 올라가 목사님께 기도를 받았습니다 기도를 받고 처음에는 아무느낌이 없었는데 목사님께서 따라 하시라고 한 말을 따라했더니 저도 모르게 입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신기했고 좋은 경험이였습니다. 둘째 날 아침에는 일어나서 아침체조를 하고 밥을 먹은다음 각자 팀별로 하가다를 하였는데 첫째날처럼 지루한게 아니라 재미있었습니다. 이순간부터 이학교에 꼭 입학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날 저녁집회때는 권오익 목사님께서 오셨는데 이분도 성령사역을 해주시는 분 이였습니다 이때도 기도를 받고 싶었지만 아쉽게도 목사님 사정상 기도를 못 받았습니다. 셋째날은 전날과 다를 것 없이 오전 오후로 하가다를 하고 저녁집회때는 신나는 찬양으로 인도해주셔서 HCS학생들과 신나게 뛰어놀고 목이 나가도록 찬양하고 목이 쉬었습니다. 넷째날 저녁집회때도 성령사역을 해주셨는데 이날 기도는 무조건 받아야겠다 싶어서 무대위로 뛰어갔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기도를 못 받을거 같아서 찬양으로 즐기기로 하고 열심히 부르고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뒤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은근슬쩍 줄을 섰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기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도를 받고 쓰러졌는데 입이 저절로 움직이고 안 움직이면 삐근하고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였는데 턱이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이 날은 지금까지 살면서 기도를 가장 많이 한 날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날 저녁집회때는 담임목사님이신 이강주목사님에게서 인도해주셨는데 찬양을 할

우예진

때 가사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가슴에 와닿아서 눈물이 쏟아졌다. 그 이후로 신나는 찬양을 하였는데 혼자 우울하게 있었다. 그러던중 성현이형이 같이 즐기자해서 그때부터 분위기를 타면서 신나게 찬양했다. 이 주는 너무나도 좋은 일주일이였다. 마지막날에는 폐회예배가 있었는데 이 예배가 끝나고 친해진 형들이나 친구들이나 동생들과 사진도 찍고 인사도 하고 좋은 추억들을 많이 남겼다. 꼭 이 학교에 입학하고 싶다!!